

「재활정보 통신망」 운영현장을 찾아서

— 장애인복지 위한 전문PC통신을 꿈꾼다 —

80년대 중반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확대 보급과 함께 PC통신을 이용한 정보이용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특정 그룹들간의 이러한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 사설게시판(BBS)이나 동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 90%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취미, 오락적 성격을 가진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이나 연구자, 개인들간에 자료교환 및 교류협력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는 「PC통신망」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천리안」에서 CUG(폐쇄이용자그룹)으로 운영되는 「재활정보통신망」이 그것이다.

(주)데이콤의 PC통신망인 「천리안」 초기화면에서 “GO REHAB”이라고 치면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재활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정보통신망<REHAB>」 화면이 보이고 곧이어, 재활관련 공개자료DB, 게시판, 포럼, 토론실, 국내외 재활관련 문헌정보, 전자회의, 전자메일등의 서비스 메뉴들이 이어서 나타난다.

데이콤의 통신망과 Host Computer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내전화요금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 재활정보통신망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데이콤, 삼성복지재단과 보건사회부의 지원을 받아 데이콤의 「천리안」에 연결해서 운영하는 CUG(폐쇄이용자그룹)이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있어 승인을 얻어야 이용할 수가 있다.

1991년 5월 29일 개통한 이래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의 장애인복지단체와 학교, 연구기관의 학자, 공무원, 그리고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재활정보와 자료를 함께 나누며 통신을 이용한 교류협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상담, 계몽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재활의 궁극적 목표에 맞추고 장애인이 일반적인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 또다른 일반통신망에 다시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당초부터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천리안」과 같이 넓게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일반통신망을 이용해 왔다.

이같은 「장애인 재활정보통신망」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사회·경제적여건에 맞물린 장애인재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발맞춘 국가의 전산화계획(보사부 국민복지망사업)이 맞물려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표 1>

서비스구성도 참조

재 활 통 신 < R E H A B >

10. 장애이해와 예방	[0/46]	20. 주요재활정보해설	[0/23]
11. 재활문단	[0/44]	21. 국내재활계소식 & 홍보	[0/46]
12. 자원봉사실	[0/16]	22. World Review	[0/13]
13. 장애인가족교실	[0/82]	23. Publications	[0/ 8]
14. 재활상담실	[0/ 1]	24. “재활학”강의실	[0/ 8]
15. 정부게시판	[0/19]	25. 사회사업실	[0/14]
30. 직업재활	[0/48]	1. 공지사항	[0/ 0]
31. 사회재활	[0/11]	2. 자유게시판	[0/62]
32. 의료재활	[0/34]	3. 재활협회 수신편지	
33. 교육재활	[0/16]	4. 전자우편	
40. 시각장애	[0/49]	5. 자료실	
41. 청각장애	[0/29]	6. 공개토론	
42. 정신지체	[0/21]	7. 전자회의	
43. 지체부자유	[0/ 3]	8. 설문조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TEL. 847-6105>

Since 1954 Affiliated with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보사부와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될 「국민복지망」 구축계획의 혜택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전산화와 DB의 구축,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으로써 앞으로 국민복지망과의 연계운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 연구자들의 교류에 있어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덜고 이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경험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장애인들이 실제생활에서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집에서조차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을 받으며 재택근

무나 정보산업 종사로 직업생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메뉴들을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 게시판(BBS), FORUM, 국내 재활계 소식 및 정보해설등 다양하다. 그중에서 사용자간에 편지나 자료문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 각 장애별(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재활영역별(직업재활, 사회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특수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는 FORUM은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타 서비스는 아직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의 재활관련 단체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PC보유 상태도 낮을 뿐더러 통신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가 낮아서 이용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럭키금성복지재단」에서 모뎀과 통신S/W를 지원받아 재활관련단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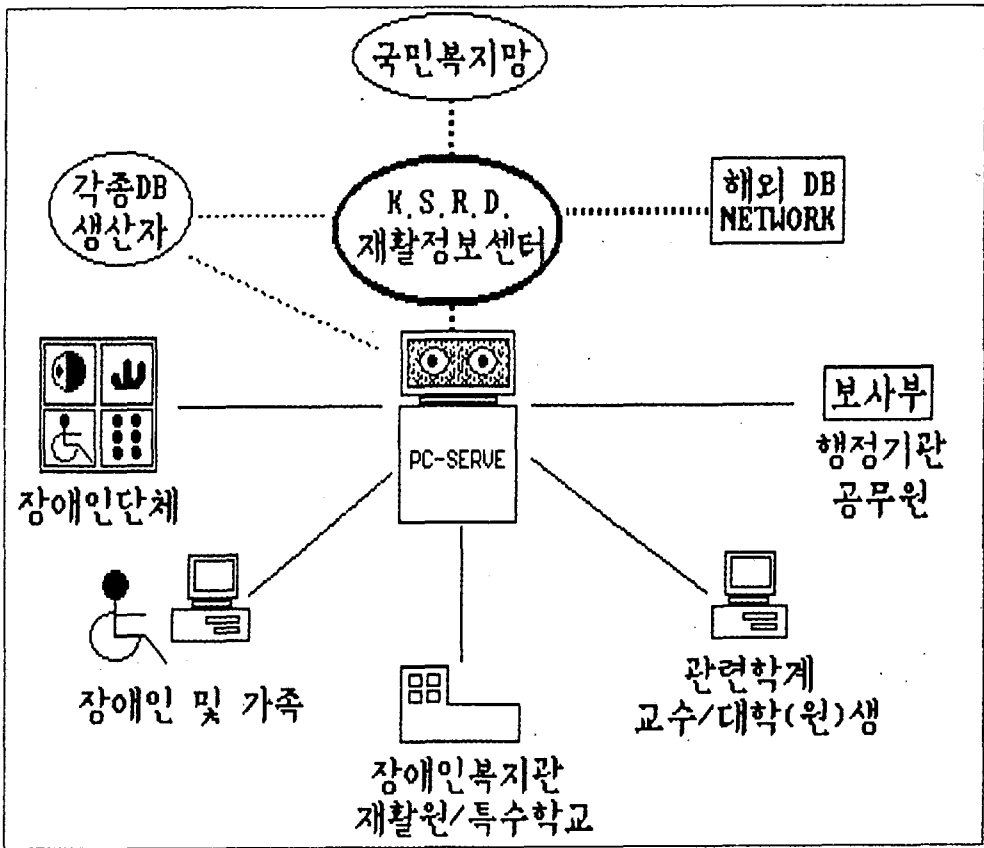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활정보통신망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재활관련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 DB로 구축함으로써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EasyNet, Compu Serve, Nifty Serve등 외국의 유명한 데이터뱅크와 국제학술전산망인 Bitnet에 접속하여 재활관련 DB를 취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안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본부 및 지부에 「재활정보센터」를 구축하

여 전국적인 재활정보통신망으로 활성화시키고, 게시판·전자사서함·전자회의·여론조사등의 통신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재활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Forum안에 Sub Forum(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을 개설하여 관련자들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94년 후반기로 예정하고 있는 재활관련 전문DB 구축과 이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제공을 위해 관련단체, 대학, 연구기관, 병원등을 중심으로 IP(Information Provider ; 정보제공자)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재활관련 실무자들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는 「온라인 재활대학」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인 경우 회의나 세미나등에 자주 참석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세미나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종사자들은 시간과 비용부담이 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은 듣고 보는데 있어서조차 '장애'를 경험한다. 뿐만이 아니다.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고, 'Feedback'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재활대학」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별적이고 개인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각자의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어디서나 PC나 단말기 한대면 어



디서나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재활정보센터는 93년 후반부터 「온라인 대학」을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재활관련 복지증진 계획에 앞서 관련 공무원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활정보센터의 나운환 과장은 이야기 한다.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1976년 UN이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한 결의사항이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형식적인 연례성 행사에 그친다는 비난에 쫓기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때다. 가령, 한국통신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말기를 장애인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통신에 대한 이용료 감면, 이용교육 실시 등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㉞]